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98



Contents



※ 2025.09.25(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9.18.~2025.09.24.)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댐 순찰에 전기추진선박 도입, 탄소중립 박차 (2025.09.19)1
- 정부,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의무화...항공료 인상 불가피 (2025.09.19) ..1
- 정부 탄소중립 정책,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 보조금 1/10 수준 지적 (2025.09.19) · 2
- 산청군, 농촌여성리더 대상 탄소중립 실천 교육 (2025.09.18) 2
- 부산 영도구, '세계 차 없는 날' 기념 탄소중립 캠페인 (2025.09.18) 3
- 강원도 사회적기업, ESG 전환으로 탄소중립 선도 (2025.09.18) 4
- 경기노사민정협의회,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탄소중립 협력 강화 (2025.09.18) 4
- 경기도, 어린이 놀이터에 코르크 바닥재 도입으로 탄소중립 실천 (2025.09.18) 5
-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인증 이벤트 개최 (2025.09.18) 5
- 세종시의회, 학교급식 남은 음식 기부로 나눔과 탄소중립 실천 모색 (2025.09.18) 6
- 파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으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 (2025.09.18) 7
- 화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 친환경 탄소중립 축산업 선도 (2025.09.19) 7
- 부천시, '잔반제로 학교 챔피언십'으로 탄소중립 실천 (2025.09.19) 8
- 의왕시, 시민 주도 탄소중립 실천 위한 '시민추진단' 위촉 (2025.09.19) 8
- 광명시, '시민참여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으로 국토부 대상 수상 (2025.09.19) 9

-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업슈', 참여 방식 단순화 필요 (2025.09.19)	9
- 탄소중립 도시 당진, 친환경 '저지' 젓소의 역할 주목 (2025.09.19)	10
- 경산시민 100여 명, 기후정의 행진으로 탄소중립도시 전환 촉구 (2025.09.22)	10
- 제주도, 기후위기 격화에 탄소중립 정책 강화 주문 (2025.09.22)	11

■ AI 분야 12

- 한-호주 경제계, 방위산업·AI 등 신산업 협력 확대 모색 (2025.09.18)	12
- 정부 교육 국정과제, AI 지원 및 학력 신장 등 전북교육청 기조와 유사 (2025.09.18)	12
- 국회 토론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제언 (2025.09.18)	13
- 성공적인 AI 운영 전환을 위한 5가지 조건 제시 (2025.09.18)	13
- 정부 'AI 3대 강국' 비전 발표 후 국회 AI 세미나 2배 급증 (2025.09.18)	14
- 창원시, '경남 디지털워크 The Next AI' 개최 (2025.09.18)	15
- 지방은행, AI 기반 디지털 전환으로 혁신 경쟁 가속화 (2025.09.18)	15
- 인천시 상수도, AI 기반 물 관리 혁신 기술 제시 (2025.09.18)	16
- 익산시, 청년·AI·전통산업 아우르는 미래 성장 전략 추진 (2025.09.18)	16
- 나주시, '글로벌 에너지포럼'서 AI와 에너지 융합 모색 (2025.09.18)	17
- 김포시, AI·디지털 기술 접목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2025.09.18)	18
- 김정기 대구시장 대행, 'AI 로봇 수도 대구' 실현 의지 표명 (2025.09.18)	18
- 서울시, '서울형 R&D'에 294억 원 지원...AI·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집중 (2025.09.18)	19
- 서초구, 양재 AI 특구 '우수기업센터' 입주 스타트업 30개사 선정 (2025.09.18)	19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20

▪ 탄소중립 분야 20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에너지 리터러시' 교육에서 시작 (2025.09.18) 20
- 무상버스 정책, 교통복지 넘어 교통부문 탄소중립의 핵심 해법으로 부상 (2025.09.18) .. 20
- 국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공동 연구 보고서 발간 (2025.09.22) 21
- 한국중부발전, 초등학생 대상 탄소중립 미래환경교육 추진 (2025.09.19) 21

▪ AI 분야 22

- KAI, 국내 최초 독자 개발 전자전 항공기 형상 공개 (2025.09.18) 22
- 코트라, 카타르와 AI 협력 포럼 개최로 중동 진출 지원 (2025.09.18) 23
-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비전공자 활약으로 기술 융합 가능성 확인 (2025.09.18) 23
- 케이뱅크, 생성형 AI 활용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2025.09.18) 24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25

▪ 탄소중립 분야 25

- 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 경영 고도화로 2050 탄소중립 가속 (2025.09.19) 25
- 실링팬형 공기정화장치, 녹색기술 인증으로 탄소중립 기여 (2025.09.21) 25
- 현대모비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제 승인 획득 (2025.09.24) 26
- 미래탄소중립포럼-국민솔라, GW급 시민발전소 설립 협약 (2025.09.18) 27

■ AI 분야 27

- 보이स्क래디, AI 기반 골프 신제품 3종 출시 (2025.09.18) 27
- AI 시스템 반도체 기업 메타씨앤아이, 제주로 본사 이전 (2025.09.18) 28
- LG, 미국 AI 로봇 스타트업 투자로 미래 먹거리 육성 가속 (2025.09.18) 29
- 애플 시리 공동개발자 "한국 AI, 개발 넘어 응용으로 진화해야" (2025.09.18) 29
- 롯데마트, AI 당도 선별 시스템 도입 후 과일 매출 7배 성장 (2025.09.18) 30
- NC AI, 한국섬유신문과 협력으로 패션 산업 AI 혁신 추진 (2025.09.18) 30
- SK네트웍스, 'AI WAVE 2025' 개최로 AI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2025.09.18) 31
- 중소기업, AI 시대 숙련 기술 인력 양성에 어려움 호소 (2025.09.18) 31
- 에쓰오일, 업계 최초 AI 기반 주유소 판매 분석 시스템 도입 (2025.09.18) 32
- 삼성전자, AI 기능 강화한 '갤럭시S25 FE' 등 신제품 3종 출시 (2025.09.18) 33
- 영남이공대-쿠팡, AI 물류 전문 인재 양성 협약 (2025.09.18) 33
- 전남대-한국인공지능협회, AI 최고위과정 출범 (2025.09.18) 34
- KAIST-POSTECH, 정기 교류전 '포카전' 개최 (2025.09.18) 34
- 중국, 자국 IT 기업에 엔비디아 AI 칩 구매 금지 (2025.09.18) 35
- 오픈AI 등 거대 유니콘, IPO 대신 '영구 사기업' 모델 선호 (2025.09.18) 36
- 아마존, 수요예측·재고관리 기능 갖춘 판매자용 AI 에이전트 공개 (2025.09.18) 36
- 학술지 '네이처', AI 생성 가짜 논문 잡는 탐지 AI 자체 개발 (2025.09.18) 3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댐 순찰에 전기추진선박 도입, 탄소중립 박차 (2025.09.19)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댐 순찰 업무에 순수 전기추진 선박을 도입하며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음. 다음 달부터 경남 거제 연초 댐 순시에 소형 전기추진선박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화석연료 중심의 선박을 전동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임. 수자원공사는 이미 2023년부터 강원 횡성댐에서도 전기추진선박을 운항해오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19일 '전기추진선박 기술공유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초댐에 도입될 선박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어시스템 안정성 방안 등을 논의함. 토론회에는 정부 기관, 산업계, 학계의 선박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기술적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함 -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정 선박 도입을 넘어, 전반적인 친환경 선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참여 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됨.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전동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해양 및 수자원 관리 분야의 탄소중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임
	□ 정부,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의무화...항공료 인상 불가피 (2025.09.19) - 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함. 이는 국제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임.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 등으로 만드는 저탄소 항공 연료로,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음 - 로드맵에 따르면 SAF 혼합 의무 비율은 2027년 1%로 시작하여 2035년에는 7~1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임. 정부는 석유 정제·수출입업자에게 '공급 의무'를, 항공사에게는 '급유 의무'를 부과하는 양측 의무 제도를 도입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정책금융 지원, 운수권 배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가점 상향 등 강력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 하지만 SAF의 가격이 현재 일반 항공유보다 2.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혼합 비율이 높아질수록 항공 운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운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혼합 비율이 높아지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함. 이에 정부와 업계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정부 탄소중립 정책,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 보조금 1/10 수준 지적 (2025.09.19) - 정부가 기후·환경 분야 국정과제로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확정했으나, 기후·환경 단체들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환경부는 산업·건물·수송 분야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체들은 단순한 전략 수립을 넘어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함 - 특히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마련과 지출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전문가들은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여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함. 또한 2024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1.2조 원으로 전년 대비 31.6% 감소했으며, 이는 화석연료 보조금 11.7조 원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 지출 구조의 개편을 촉구함 - 정부 지원이 기술 개발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옴. 이를 위해서는 전력 시장 자체를 개편하여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배터리 저장장치, 가상발전소(VPP) 기술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또한, 새로운 공론장 신설보다 이미 제기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임
지자체	□ 산청군, 농촌여성리더 대상 탄소중립 실천 교육 (2025.09.18) - 경남 산청군이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농촌여성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함.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사랑연구회 회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이론과 체험을 결합하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둬.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 리더들이 탄소중립 실천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교육 프로그램은 탄소중립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실습으로 구성됨. 특히 꽃사랑연구회 회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강사로 참여하여 재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함. 또한,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함 - 산청군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함. 오는 23일에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주제로 한 정보 공유의 장과 친환경 세제 만들기 실습이 예정되어 있음.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힘
지자체	□ 부산 영도구, '세계 차 없는 날' 기념 탄소중립 캠페인 (2025.09.18) - 부산시 영도구가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친환경 교통 주간'과 '저탄소 추석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동시에 전개하며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나섬.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범지구적 과제에 동참하고, 구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됨 - 영도구는 '세계 차 없는 날'의 취지를 살려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독려, 자전거 타기 챌린지, 친환경 운전 실천 홍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함. 또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공용차량 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친환경 교통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임. 김기재 구청장은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함 - 특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급증하는 교통량과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를 고려하여, 구민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 5대 실천수칙'을 제안함. 이를 통해 명절 기간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강원도 사회적기업, ESG 전환으로 탄소중립 선도 (2025.09.18) - 강원도 내 사회적기업들이 일상 속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의 ESG 전환을 이끌며 탄소중립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음. '주식회사 깨끗'은 다회용기 임대·세척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에스비티엔텍'은 유기성 폐기물을 바이오차 등 자원으로 전환하여 순환 경제 모델을 제시함. 이들 기업은 처리 비용을 지역의 이익으로 바꾸는 가능성을 현장에서 증명하고 있음 - 예비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깨끗'은 공공기관, 장례식장, 축제 등에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수거·세척까지 책임지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함. 이를 통해 연간 수십 톤의 쓰레기를 감축하는 환경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체 직원의 6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함. 친환경 소재 사용으로 안전성까지 확보하며 다회용기 문화 정착에 앞장 서고 있음 - '에스비티엔텍'은 축산 분뇨,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을 현장에서 직접 발효·건조·탄화시켜 바이오 고형연료와 바이오차로 만드는 기술을 상용화함. 이는 운반 및 매립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개량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인 모델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역의 탄소 저감과 농가 수익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 순환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음
	□ 경기노사민정협의회,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탄소중립 협력 강화 (2025.09.18)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안전과 탄소중립(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제2차 대·중소기업 상생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이번 회의는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이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됨. 한국노총, 경기경총을 비롯해 포스코DX,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 - 회의에서는 지난 정책포럼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제언들이 심도 있게 다뤄짐. 특히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정보 제공, ESG 경영 도입 초기 비용 부담 완화, 기술 및 인력 지원의 필요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부상함. 또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상생 협력 참여 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 방안도 중요한 화두로 오름 - 추진협의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업종별 산업안전 매뉴얼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임.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ESG 경영과 산업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계획임
	□ 경기도, 어린이 놀이터에 코르크 바닥재 도입으로 탄소중립 실천 (2025.09.18) - 경기도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이 사업은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등 주민 여가시설의 바닥재를 기존 고무에서 친환경 코르크 소재로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이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 13개 시군, 26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임 - 이 사업의 핵심은 코르크 바닥재가 지닌 탁월한 탄소감축 효과에 있음. 원재료 생산 단계의 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면, 고무 바닥재가 약 1,01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코르크는 약 63톤에 불과함. 특히 코르크는 소재 자체적으로 탄소를 저장하는 '탄소 네거티브' 특성을 지녀, 현재까지 시공된 26개소 기준으로 약 948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됨. 이는 고무 대비 16배 이상 뛰어난 수치임 - 코르크는 100% 천연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기 시 환경 부담이 적으며, 뛰어난 충격 흡수력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임. 이러한 장점 덕분에 이번 시범 사업은 지역 환경 개선,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탄소 배출 저감, 주민 건강 증진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거두는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경기도는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RE100 실천 모델로서 계속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인증 이벤트 개최 (2025.09.18) - 서울 관악구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구민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인증 이벤트'를 진행함. 이번 이벤트는 구민들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일상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이를 인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됨 - 참여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성인이며,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임. 선착순 300명에게 경품이 지급될 예정으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됨. 참여 방법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사용, 공유자전거 이용, 다회용기 배달주문 등 네 가지 친환경 실천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고 사진으로 인증하면 됨 -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상 속 친환경 생활을 자연스럽게 습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또한,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2050 탄소중립 관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함
	□ 세종시의회, 학교급식 남은 음식 기부로 나눔과 탄소중립 실천 모색 (2025.09.18)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주최한 '학교급식 예비식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배식 후 남은 급식 식품을 소외계층에 지원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동시에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방안이 논의됨. 이 제도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천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간담회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됨 - 간담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경기 용인 성지고의 오종민 사무관은 학교 잔식 기부가 교과서에도 소개된 우수 사례임을 강조하며, 제도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학생들의 환경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세종 새롭고 학생 동아리는 기부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과 홍보의 필요성을 제안함 - 참석자들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안전한 배송 체계 구축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김현옥 의원은 “예비식은 나눔, 환경, 교육의 가치를 담은 소중한 자원“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탄소중립은 물론 나눔 문화 확산과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파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으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 (2025.09.18) - 파주시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거점기관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공식 지정함. 시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을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지원 기능을 통합한 '환경통합센터'의 수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며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함 - 운정호수공원 내에 위치할 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주요 역할로는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과 시행 지원, 시민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 발굴, 지자체 간 협력 증진 활동,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됨. 이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게 됨 - 특히 센터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임. 유아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조운옥 과장은 센터를 중심으로 행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실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힘
	□ 화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 친환경 탄소중립 축산업 선도 (2025.09.19) - 수원축산농협이 화성시 서신면 에코팜랜드 부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준공하며, 경기도에서 친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딤. 이 시설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축산업의 환경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준공식에는 농·축협 및 지자체 관계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 - 이 첨단 공공시설은 하루 170톤 규모의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분뇨를 상시 처리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퇴비와 액비는 농경지로 환원되어 경축순환 농업을 실현함. 이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환경 보호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동시에 기여하는 모델임 - 또한, 이 시설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시간당 576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어, 올해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이 강조하는 탄소중립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장주익 조합장은 이 시설이 조합원의 숙원사업이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이라며,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함
	□ 부천시, '잔반제로 학교 챔피언십'으로 탄소중립 실천 (2025.09.19) - 부천시가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잔반제로 학교 챔피언십' 프로그램을 추진함. 시는 이달 26일까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이 프로그램은 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탄소중립 실천 모델의 일환임 - '잔반제로 학교 챔피언십'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임.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라는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와 함께, 학생들에게 자원 순환과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학교에는 '탄소지움 스쿨' 인증이 부여되며, 연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학교를 시상할 계획임.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 학교의 학년별 1등을 차지한 학급에는 간식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하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방침임
	□ 의왕시, 시민 주도 탄소중립 실천 위한 '시민추진단' 위촉 (2025.09.19) - 경기 의왕시가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의왕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함. 이번에 위촉된 시민추진단은 일반시민, 청년, 전문가,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37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폭넓은 의견 수렴과 참여를 기반으로 활동할 예정임.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민 모두의 참여로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시민추진단은 앞으로 2년간 의왕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안, 실천 운동 확산, 홍보 활동 등 민간 주도의 협치 역할을 수행하게 됨. 오는 27일 '의왕시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역량 강화 교육, 정기회의, 기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위기 적응 대책 이행점검, 캠페인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임 - 김성제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시민추진단이 넷제로(Net-Zero) 생활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당부함. 시는 추진단의 열정과 지혜가 '203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
	□ 광명시, '시민참여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으로 국토부 대상 수상 (2025.09.19) - 경기 광명시의 '시민참여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대상'에서 도시환경·경관 분야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우수성을 입증함. 이번 수상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까지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광명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광명형 도시재생의 핵심은 '시민참여'와 '탄소중립'으로, 시는 도시재생 총괄기획단, 주민협의체, 추진단 등 민관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옴. 또한 현장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마을 숲 조성, 에너지 효율 개선 집수리 등 녹색도시 기반을 구축함 - 박승원 시장은 도시재생의 진정한 가치가 시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접목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광명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정책브랜드인 '그린라이트 광명'을 선보이며, 그간의 성과와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며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계획임
	□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업슈', 참여 방식 단순화 필요 (2025.09.19) -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탄소중립 실천 앱 '탄소업슈'의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 및 적립 방식을 더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탄소업슈'는 텀블러 사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교환해 주는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임 - 도민패널 1,9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탄소업슈'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인지하고 있었으며 84.1%가 앱 사용 의사를 밝혀 높은 관심을 보임. 앱을 이용하려는 주된 이유는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동시에 포인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음. 이는 금전적 인센티브와 환경 보호라는 가치가 결합될 때 시민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반면, 앱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참여 절차와 방식이 복잡할 것 같아서'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포인트 적립 규모나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뒤를 이음. 따라서 더 많은 도민,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 탄소중립 도시 당진, 친환경 '저지' 젓소의 역할 주목 (2025.09.19) - 탄소중립 도시를 지향하는 당진시가 지속 가능한 낙농업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저지(Jersey)' 품종 젓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국내 젓소의 99%를 차지하는 홀스타인종은 산유량이 높은 반면 사료 소비와 분뇨 배출량이 많아 환경적 부담이 컸음. 반면 체구가 작은 저지종은 사료 섭취량과 분뇨 배출량이 적고, 특히 탄소 배출량이 홀스타인종의 약 80% 수준으로 낮아 친환경 품종으로 평가받음 - 저지종 젓소는 환경적 이점 외에도 경제적 가치가 높음. 유지방과 유단백 함량이 높아 치즈나 버터 같은 고부가가치 가공유제품 생산에 유리하며, 이는 음용유 중심에서 프리미엄 가공유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음. 당진낙농축협은 이미 저지종 젓소 약 100마리를 사육하며 '저지본'이라는 요거트 브랜드를 출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가능성을 보여줌 - 당진시가 저지종 젓소 사육을 환경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저지종 사육 확대는 가축에서 유래하는 메탄가스를 저감하여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낙농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산시민 100여 명, 기후정의 행진으로 탄소중립도시 전환 촉구 (2025.09.22) - 경북 경산시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2025 경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기후정의행진'이 열림. 이 행사는 '2025 경북기후정의행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민과 여러 시민사회단체 소속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산시청에서 경산역까지 함께 걸으며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알림 - 경북기후정의행진은 '기후 불평등을 넘어 생명의 숲으로 경북을 잇자'는 슬로건 아래, 도내 6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됨. 이는 지역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됨. 경산 행진은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다양한 단체들의 동참을 이끌어냄 - 행진에 참여한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장은 “도농복합도시인 경산은 기후재난 대응에 있어 행정력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하며, “사람 중심의 안전한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함. 이번 행진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제주도, 기후위기 격화에 탄소중립 정책 강화 주문 (2025.09.22)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함.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행정적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임.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오 지사는 최근 열대야와 폭염 일수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는 등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도정 차원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는 제주도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재확인한 것임. 제주의 청정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 마련도 주문함. 이 사업은 12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의 선도적인 보건복지 정책으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함. 이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임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한-호주 경제계, 방위산업·AI 등 신산업 협력 확대 모색 (2025.09.18) - 한국과 호주 경제계가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산업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함. 제46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첨단 방위산업, 인공지능(AI) 혁신, 재난 대응 및 산업안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장인화 한호 경협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가 단순한 투자 확대를 넘어 산업 안전과 지역사회 상생까지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함 -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고도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짐. 마틴 퍼거슨 호주 측 위원장은 역내 평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서영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전통적 무기체계를 넘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와 같은 신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함. 또한 백우열 연세대 교수는 오키스 필라 2 가입 등 양국 협력을 공식화할 필요성을 제기함 - 양국 경제계는 핵심광물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밸류체인 협력 방안을 제시함. 삼성물산은 양국의 강점을 활용한 수소, 암모니아, 배터리 저장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으며, 고려아연과 포스코홀딩스도 그린메탈 생산 및 핵심광물 R&D 협력 계획을 밝힘. 양측은 CPTPP 한국 가입 지지, 녹색경제동반자협정 이행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며 협력 의지를 다짐
	☐ 정부 교육 국정과제, AI 지원 및 학력 신장 등 전북교육청 기조와 유사 (2025.09.18) -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되었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국가균형성장과 국민 모두를 위한 AI 교육 지원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됨. 교육부는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인구위기 극복, 개인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목표로 지역교육 혁신,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발표함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이끄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는 정책으로, 학부 교육 혁신과 연구경쟁력 강화를 지원함. 전북의 경우 전북대학교가 해당되며, 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하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지역 전략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됨 - 특히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와 전담 교원을 확대하는 내용은 전북교육청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함. 이는 AI·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과 기초학력 신장을 중시하는 전북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부합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국회 토론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제언 (2025.09.18) - 'AI 3대 강국 도약 입법 제언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됨. 발제자로 나선 강시철 제노시스 AI헬스케어 부회장은 기술력, 산업 경쟁력, 데이터 활용,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제조, 헬스케어, 콘텐츠, 행정 등 주요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AI 활용 전략을 제시함 -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AI 기술 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함. 그는 AI가 경제를 넘어 의료, 교육, 국방 등 전 영역을 변화시키는 만큼, 기술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함 -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순용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공진호 과기정통부 과장, 이병남 김앤장 고문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참석자들은 창의와 도전을 장려하는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AI 시대에 맞는 법률 및 규제 개선, 인재 양성 시스템 혁신 등 다양한 입법 제언을 통해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함
	□ 성공적인 AI 운영 전환을 위한 5가지 조건 제시 (2025.09.18) - 국내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도입률이 28%로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남. 많은 기업이 AI의 기능을 과신하여 단순히 기술 도입에만 그치기 때문임.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AI와 사람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협력하여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 구조와 각자의 역할을 재정의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BCG코리아의 강지훈 파트너는 AI 도입만으로 자동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함. 그는 AI를 기반으로 기업 전체의 운영 방식을 혁신하는 'AI 오퍼레이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5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기술 도입을 넘어선 조직적,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임 - 성공적인 AI 전환은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비전과 전략, 조직 문화, 인재 역량, 데이터 거버넌스 등 다각적인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가능함. 따라서 기업들은 AI 도입에 앞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사적인 변화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통해 AI 역량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부 'AI 3대 강국' 비전 발표 후 국회 AI 세미나 2배 급증 (2025.09.18) -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비전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국회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관련 세미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9월 현재까지 의원실 주최로 열린 AI 관련 세미나는 28건으로, 8월의 14건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남.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국회에서도 AI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임 - 최근 1년간 국회에서 열린 AI 관련 세미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대통령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 9월이 가장 많았음. 챗GPT 등 AI 사용자 수가 급증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도 세미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올해 9월까지 열린 AI 세미나는 총 131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건수인 62건을 두 배 이상 넘어섬 - 다만, 이러한 현상이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를 쫓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됨. 전문가들은 세미나가 실제 정책 입안이나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논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함. 또한 AI 윤리, 일자리 문제 등 정부 정책의 보완점을 고민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창원시, '경남 디지털위크 The Next AI' 개최 (2025.09.18) - 창원특례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경남 디지털위크 The Next AI'를 개최하여 제조업과 AI 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래 비전을 제시함.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AI 기술이 결합한 '퍼지컬 AI'의 미래를 조명함. 국내외 AI 기술 동향 공유 및 산·학·연·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행사 기간 동안 AI 산업 전시회와 1:1 맞춤형 상담회가 열리며, 네이버, LG, 구글 등 대기업과의 솔루션 매칭 데이, 스타트업 IR 피칭대회, 유명 유튜버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됨.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가 창원 제조 AI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창원국가산단의 지속 가능한 미래 50년을 제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함 - 이 행사는 2024년부터 3년간 총 163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임. 1차년도에는 디지털 혁신거점 지원시설 구축, R&BD 협업 프로젝트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자생적 생태계 구축과 유망 기술 기업의 사업화 및 실증 지원을 통해 경남 디지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임
	□ 지방은행, AI 기반 디지털 전환으로 혁신 경쟁 가속화 (2025.09.18) - 지방은행들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혁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음. 그동안 수도권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투자 여력과 데이터 규모의 한계로 AI 도입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금융산업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체 조직 신설 및 공동 대응을 통해 해법을 모색 중임. 이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제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AI 전담조직을 ERP뱅크사업단 내에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전사적인 AI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에 나섰음. 단순 자동화를 넘어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임. 이는 전통적인 AI 서비스를 넘어선 차별화된 미래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BNK금융, JB금융, iM금융 등 지방금융지주사들은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AI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술 공동 활용을 추진함. 3사는 AI 윤리 원칙, 법적 규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기준을 함께 마련하여 내년 1월 시행될 '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음. 이러한 공동 대응은 AI 기반 심사 및 보안 강화를 통해 지역 기업과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 충성도를 제고하는 등 지방 금융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인천시 상수도, AI 기반 물 관리 혁신 기술 제시 (2025.09.18)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2025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통합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혁신적인 물 관리 기술과 스마트 물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함. 이번 학술대회는 '물 인프라의 AI 혁신기술과 스마트 물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학계, 전문가, 기업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 - 본부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AI 활용 물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물 산업의 AI 혁신 기술 발전 등 세 개의 전문 세션을 운영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음.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수요 증가 등 수자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 상수도 시스템에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함. 이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됨 -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인천시 상수도의 혁신적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의지를 밝힘.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AI를 활용한 물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천시의 선도적인 기술 도입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익산시, 청년·AI·전통산업 아우르는 미래 성장 전략 추진 (2025.09.18) - 익산시가 청년, 미래 신산업, 전통산업을 세 축으로 하는 미래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담한 조직개편을 단행함. 지난 7월 신설된 청년경제국을 중심으로, 분산되었던 청년정책을 통합 관리하며 전입부터 정착, 성장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산업과 내에 미래산업AI계를 신설하고, 국가 전략과 제인 'AI 3대 강국 도약'에 발맞춘 정책을 추진함. 오는 10월 개소 예정인 익산 AI 디지털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산업의 AI 전환(AX), AI 기업 유치 및 육성, 인재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이를 통해 지역 주력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권 AI 산업 생태계 확산을 선도하고자 함 - 보석, 석재, 섬유 등 지역 연고 산업의 부흥을 위해 지역전통산업과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육성 전략을 펼치고 있음. 특히 익산귀금속제조업협동조합 출범과 공동브랜드 '에드베네' 론칭 등을 통해 익산 주얼리 산업의 재도약을 준비 중임. 청년경제국은 이처럼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
	□ 나주시, '글로벌 에너지포럼'서 AI와 에너지 융합 모색 (2025.09.18) - 전라남도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에서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를 개막하고, 에너지와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전략 논의를 시작함. 올해 포럼의 주제는 'DDD 에너지 전환'으로, 분산(Distributed), 직류(DC), 디지털 AI(Digital AI)를 핵심 의제로 삼아 미래 전력망 구조와 분산형 에너지 시장 설계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함 - 개막식에는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과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사전 신청자가 2천 명을 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음. 노보셀로프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그래핀 등 차세대 신소재 연구가 AI 기반 맞춤형 설계로 확장되면서 에너지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함 -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포럼이 AI 시대의 미래 전력망과 탄소중립 실현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나주가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포럼은 이틀간 AI for Energy 세션, 비즈니스 투자 상담, 시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논의와 교류의 장을 이어갈 예정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김포시, AI·디지털 기술 접목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2025.09.18) - 경기 김포시가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국내 최초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독서 축제로 개최함. 김병수 시장은 이번 행사가 AI 시대에 필수적인 창의적 질문 능력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독서를 놀이처럼 즐기는 새로운 문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독서 문화 확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음 - 이번 독서대전은 '독서는 곧 놀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문보트 카니발', '북팝' 등 독특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또한, 국내 대표 작가들이 참여하는 강연 및 토론,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마련되어 풍성한 축제의 장을 열 예정임 - 특히 시는 QR코드를 활용하여 행사 참가자들의 연령, 성별, 선호도 등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계획임. 이 데이터는 향후 맞춤형 독서문화정책과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행사의 지속성과 정책적 파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이를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김정기 대구시장 대행, 'AI 로봇 수도 대구' 실현 의지 표명 (2025.09.18)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인터뷰를 통해 “AI와 로봇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AI 로봇 수도 대구'를 현실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힘. 대구는 과거 섬유산업의 쇠락 이후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 왔으며, 그 결과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의료 분야에서 상당한 비교우위를 확보했다고 설명함 - 김 대행은 지역의 강점인 기계·자동차부품산업과 로봇·의료산업 전반에 AI 전환(AX)을 촉진하여 첨단산업 중심으로 생태계를 재편할 계획임을 강조함. 특히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 국내 유일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로봇산업을 지역경제의 핵심 견인차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임 - 비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 집적단지인 성장한 수성알파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냄. 제2수성알파시티까지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2030년에는 9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SK의 AI데이터센터, DGIST 글로벌캠퍼스 등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첨단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함. 중소기업의 AX 추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 지원책 마련도 약속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서울시, '서울형 R&D'에 294억 원 지원...AI·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집중 (2025.09.18) -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올해 신규 과제 153개를 선정하고 총 294억 원을 지원함. 특히, 지원금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42억 원을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로봇 등 6대 신성장산업 분야 71개 과제에 집중 투입하여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임. 이번 공모는 평균 7.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 - 신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사회적 가치 확산 과제에도 96억 원을 투입함.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혁신챌린지', '민간투자연계 R&D' 등 33개 과제에 56억 원을 배정하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2005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R&D 프로그램으로, 지난 2년간 8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서초구, 양재 AI 특구 '우수기업센터' 입주 스타트업 30개사 선정 (2025.09.18) - 서울 서초구가 양재 AI 특구 내에 조성 중인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에 입주할 차세대 AI 유니콘 유망 스타트업 30개사를 최종 선정함. 오는 12월 개소 예정인 이 센터는 유망 AI 스타트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넓은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됨. 주변 시세의 5분의 1 수준인 임대료 덕분에 전국 60여 개 기업이 지원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임 - 구는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 혁신성, 글로벌 성장 잠재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정예 기업들을 선발함. 선정된 30개사는 평균 매출 12억 원, 평균 특허 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CES 혁신상 수상 기업도 5개나 포함되는 등 이미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받은 유망 기업들로 구성됨 - 입주 기업들은 저렴한 임대료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됨. 양재 AI 특구 규제특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이 적용되며, 향후 5년간 조성될 1100억 원 규모의 '서초AI스타트업 펀드' 지원,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투자유치 행사 등 체계적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짐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에너지 리터러시' 교육에서 시작 (2025.09.18)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과제가 되면서, 국민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에너지 리터러시(Energy Literacy)'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이해 등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에너지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재단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연구회와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하며 미래세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음. 올해는 초·중·고 교원 20개 그룹을 대상으로 에너지소양 교육 교사연구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함. 이를 통해 교원들이 주도하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현장 중심의 에너지 리터러시 확산에 기여함 - 최근 개설된 '에너지교육포털'은 학생, 교사, 시민 모두를 위한 온라인 학습 허브로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음. 연령과 수요에 따라 교재, 학습 자료, 생활 콘텐츠를 제공하며, 강사 파견 및 진로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함. 재단은 앞으로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누구나 쉽게 에너지 정보를 접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무상버스 정책, 교통복지 넘어 교통부문 탄소중립의 핵심 해법으로 부상 (2025.09.18) - 전국 15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전면 무상버스' 정책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넘어, 교통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녹색전환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비수도권의 1인당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울의 2배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통해 승용차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무상버스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정책이자, 승용차 이용을 줄여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중요한 기후정의 실현 수단임. 특히 대중교통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보다 무상버스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전국적 형평성을 위해 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 연구소는 무상버스 정책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15개 지역의 평균 투입 비용이 지자체 재정자주도 대비 0.2%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고 분석함.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교통 부문 탄소중립이 어려운 만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지원사업과 무상버스를 연계하여 전국적인 교통복지와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국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공동 연구 보고서 발간 (2025.09.22) -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 소속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연구 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는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향후 과제를 조명하고,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선정한 국가적 3대 과제 중 첫 번째 공동 연구 성과물임 - 보고서는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 산업·정책·재정사업 분석, 국가감축목표(NDC), 거버넌스 개편 등 심층적인 분석을 담고 있음. 총론에서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국민 의견 수렴, 입법, 재정 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탄소중립을 국가적 전략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NDC 달성의 핵심 변수임을 지적하며 저탄소 공정, 에너지 전환 등 이행 전략 검토를 제언함. 또한, 2035년 NDC 설정을 위한 법 개정 논의, 독립적인 기후 관련 상임위원회 운영, 기후-에너지-산업 정책 간 연계성을 보장할 법적 기반 마련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한국중부발전, 초등학생 대상 탄소중립 미래환경교육 추진 (2025.09.19) - 한국중부발전이 정부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보령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작은 실천, 큰 지구' 환경 프로젝트를 시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함. 이번 프로젝트는 사내 혁신조직인 KOMIPO프론티어가 기획한 것으로, 미래세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며 ESG 경영 기조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계획됨 - 프로젝트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첫째는 보령의 해양, 습지 등 자연생태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환경교육인 '지속 가능 미래 학교'이며, 둘째는 일상 속 탄소중립 행동을 SNS로 인증하는 참여형 'ESG 환경챌린지'임. 이를 통해 이론 교육과 실생활 실천을 연계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지속 가능 미래 학교'는 국립생태원 및 지역 환경 전문가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9월 말까지 보령 지역 5개 초등학교 약 12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임. 이영조 사장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은 책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미래세대가 환경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KAI, 국내 최초 독자 개발 전자전 항공기 형상 공개 (2025.09.18)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5 전자기전 워크숍'에서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의 형상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 이번에 공개된 형상은 1조 7775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 항공기 체계 개발 사업에 KAI가 최종 제안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전자전 역량 확보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KAI가 제안한 전자전기는 지난 40여 년간 축적된 국산 항공기 개발 경험과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임. KAI는 백두체계 2차 사업 주관 경험과 피스아이, P-3CK 등 특수목적기 개조·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 수준의 설계 및 인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능력을 입증함. 이번 전자전기는 기본 플랫폼인 봄바르디어 G6500 동체를 기반으로 출력 최적화, 냉각·전력 시스템 통합, 생존성 강화 등을 목표로 설계됨 - 특히 한화시스템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전 수행체계를 소형·경량화하고, 동체 양측에 장착하는 측면 일체형 개조 방식을 채택하여 기체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전자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함. 이는 미 공군의 최신 전자전기 EA-37B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비행 안전성과 임무 능력을 동시에 확보한 혁신적인 설계로 주목받음. KAI는 향후 AI 탑재 등 미래 진화적 형태로 확장할 계획임
	□ 코트라, 카타르와 AI 협력 포럼 개최로 중동 진출 지원 (2025.09.18) - 코트라(KOTRA)가 중동 국가들의 AI 정책 수요에 발맞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본격화함. 최근 두바이 미래재단과의 MOU에 이어, 카타르에서 통신정보기술부와 공동으로 '한-카타르 AI 협력 포럼'을 개최함. 이는 'AI 전략 2031'을 발표한 UAE와 '국가 디지털 아젠다 2030'을 추진 중인 카타르의 높은 AI 기술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임 -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의 AI 개발 정책 수요를 공유하고, 국내 AI 솔루션을 현지에 소개하는 장이 마련됨. 특히 국내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한 전문가 대담과 국내 기업이 개발한 AI 아나운서가 기술 소개를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및 7개 AI 기업이 참여하여 현지 기관 및 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을 벌임 - 카타르는 AI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인공지능 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19.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김명희 코트라 부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확인된 높은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AI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비전공자 활약으로 기술 융합 가능성 확인 (2025.09.18) -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제3회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에서 농업 비전공 대학생들이 축산 AI 알고리즘을 개발해 결선까지 진출한 사례를 언급하며, 농업과 다른 분야 간 기술 융합의 밝은 미래를 전망함. 과거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인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들이 농업 AI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 기관, 기업이 연합팀을 구성해 참여하는 등 협력 모델이 확산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박 원장은 축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 대회를 창설했으며, 3회째를 맞으면서 현장 문제 해결 방식이 장비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솔루션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함. 특히 올해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농장주가 직접 사용 후기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AI 기술이 농가에 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음 - 그는 앞으로의 AI 솔루션이 생산성 향상을 넘어 환경 문제 해결, 질병 저감 등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ESG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스마트 축산 생태계 조성이 가장 중요하며, 기업, 대학,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디지털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케이뱅크, 생성형 AI 활용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2025.09.18) - 케이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받으며, 은행 전반의 AI 경쟁력 강화에 나섬.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생성형 AI 앱 번역', '생성형 AI 상담 어시스턴트', '생성형 AI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고객 서비스부터 내부 업무 효율화까지 전방위적인 AI 내재화를 목표로 함 - '생성형 AI 앱 번역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 콘텐츠를 다국어로 실시간 번역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생성형 AI 상담 어시스턴트'는 고객 정보와 상담 이력을 분석해 상담원에게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품질을 높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지능형 지원 시스템임 - '생성형 AI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 서비스'는 문서 작성, 정보 탐색, 코드 생성 등 내부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하여 안정적인 बैं킹 서비스 운영에 기여함. 케이뱅크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생성형 AI 활용을 더욱 고도화하고, 지난 2월 도입한 금융 특화 LLM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AI 접목을 확대하며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 경영 고도화로 2050 탄소중립 가속 (2025.09.19) -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경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고도화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음. 그룹은 에너지 발전 사업에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적용하고, 폐기물 재활용 및 재원료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임. 주요 계열사 모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임 - 금호석유화학은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을 전 사업장으로 순차 확대하고, CCUS 설비를 구축하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후 유용한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등 순환 경제 기반을 조성함. 금호피앤비화학은 시설 투자를 통해 대기방지시설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환경 경영을 고도화하고 있음 - 금호미쓰이화학은 친환경 리사이클링 공정을 도입하여 폐수를 재사용하고 원재료 자급률을 높였으며, 재생 원료를 활용한 제품으로 ISCC PLUS 국제 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금호폴리캠은 생산설비 증설에 맞춰 대기오염물질 처리 용량을 높이고 폐기물 보관 시설을 확장하는 등 환경오염 저감 노력을 강화하며 그룹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 실링팬형 공기정화장치, 녹색기술 인증으로 탄소중립 기여 (2025.09.21) - 국내 기업 (주)지에이홀딩스가 개발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실링팬형 스마트 공기정화장치'가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함. 이 제품은 기존 스탠드형 공기청정기와 달리 천장에 실링팬 형태로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임. 실링팬의 상승 기류를 이용해 사각지대 없이 실내 전체 공기를 정화하고 순환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함 - 이 기술의 핵심은 공기 정화와 순환을 동시에 실현하여 실내 오염물질 축적과 미세먼지 정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음. 또한, 실링팬 기능으로 여름철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체감 온도를 2~3℃ 낮춰 냉방 에너지 수요를 줄임으로써 약 15~20%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제공함. 이는 실내 공기질 관리와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실현에 동시에 기여하는 융합 기술임 - 이러한 장점 덕분에 해당 장치는 공간 활용과 안전이 중요한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특히 서울시의 '탄소고정형 스마트 쉼터' 사업에도 도입되어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음. 이번 녹색기술 인증을 통해 기술력을 공식 인정받았으며, 향후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임
	□ 현대모비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제 승인 획득 (2025.09.24) - 현대모비스가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로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글로벌 연합기구인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음. SBTi는 기업의 감축 목표가 파리기후변화협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기구로, 이번 승인은 현대모비스의 탄소중립 전략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함 - 현대모비스는 2030년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온실가스(스코프 1·2)를 2019년 대비 46% 줄이고,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스코프 3)도 원 단위 기준 55% 감축할 계획임. 이는 2019년 배출량의 거의 절반 수준을 줄이는 도전적인 목표로, 회사의 강력한 친환경 경영 의지를 보여줌 - 이번 SBTi 승인은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SBTi 승인을 받은 부품 기업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에 이를 포함하고 있음. 현대모비스는 RE10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협력사 온실가스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미래탄소중립포럼-국민솔라, GW급 시민발전소 설립 협약 (2025.09.18) - 미래탄소중립포럼과 에너지기본소득 플랫폼 기업 국민솔라가 국내 최초로 기가와트 (GW)급 시민 재생에너지 발전회사 설립을 위한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함. 양 기관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사업을 기반으로,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에너지기본소득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힘. 이를 위해 인천·경기 지역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공익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함 - 이번 협약은 대규모 발전사업을 정부나 대기업의 영역으로 여기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적기업이 주도하고 주민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시민 중심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사업 수익의 3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기본소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소를 기피시설이 아닌 선호시설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 이 협력 모델은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정책의 현실적 걸림돌이었던 초기 투자비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포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부지 확보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시민 참여형 펀딩과 전문적 사업 관리를 결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한국형 '에너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고 있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보이스캐디, AI 기반 골프 신제품 3종 출시 (2025.09.18) - 골프 IT 기업 보이스캐디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3종을 선보이며 '생각하고 조언하는 캐디'로의 진화를 선언함. 이번에 출시된 골프워치 'T12 프로', 음성인식 레이저 거리측정기 '레이저 FIT 보이스', OLED 화면을 탑재한 'SL 미니'는 모두 AI 기능을 핵심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한 차원 높은 골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골프워치 'T12 프로'는 전용 앱과 연동하여 라운드 전에 코스를 시뮬레이션하고 개인의 비거리에 맞는 최적의 공략 경로를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함.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전략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며, 라운드 후에는 상세한 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통해 실력 향상을 돕는 개인 맞춤형 코치 역할을 수행함 - '레이저 FIT 보이스'는 음성 명령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간편함을, 'SL 미니'는 OLED 화면으로 코스 전경과 그린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을 더했음. 특히 SL 미니에 탑재된 독자 기술 '오토핀(APL)'은 국내 골프장 80%와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핀 위치를 자동 인식하는 등, AI 기술을 통해 골퍼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둠
	□ AI 시스템 반도체 기업 메타씨앤아이, 제주로 본사 이전 (2025.09.18) - 인공지능(AI)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강소기업인 메타씨앤아이가 서울 강남에 있던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며, 제주도의 첨단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탬. 메타씨앤아이는 포브스코리아가 선정한 '대한민국 파워 혁신기업 30'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이름을 올린 유망 팹리스(Fabless) 기업으로, 이번 이전은 제주의 기업 유치 노력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됨 - 메타씨앤아이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반도체와 초고해상도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저전력 설계 기술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제주는 이미 팹리스 기업인 제주반도체가 지역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경험이 있어, 메타씨앤아이의 이전이 제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 제주도는 1·3차 산업 중심의 기형적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첨단 기술 집약형 제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음.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오영훈 지사는 이번 본사 이전을 계기로 제주에 맞는 첨단기술 산업생태계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LG, 미국 AI 로봇 스타트업 투자로 미래 먹거리 육성 가속 (2025.09.18) - LG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피지컬 AI(AI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음. 그룹 산하 벤처캐피털(VC)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최근 미국 AI 로봇 스타트업 '다이나로보틱스'의 시리즈A 투자에 참여했으며, 이는 올 들어 세 번째 AI 로봇 분야 투자임. 이는 그룹 차원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한 'ABC'(AI·바이오·클린테크) 집중 육성 전략에 따른 행보임 - 다이나로보틱스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수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특화된 AI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다이나-1'으로 주목받는 기업임. LG는 앞서 AI 로봇 두뇌 개발 기업 '스킬드 AI'와 AI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에도 투자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목하는 유망 기업들을 선별하여 지분을 확보하며 미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설립된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ABC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누적 투자액은 4억 달러에 이룸. 특히 올해 상반기 투자 규모는 반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으며, AI 분야 누적 투자액은 1억 달러를 넘어섬. 이는 "신사업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솔루션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구 회장의 주문에 따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임
	□ 애플 시리 공동개발자 "한국 AI, 개발 넘어 응용으로 진화해야" (2025.09.18) - 애플 '시리'의 공동개발자이자 휴머니스틱AI 창업주인 톰 그루버가 '2025 GGGF' 포럼 연설을 앞두고, 한국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넘어 '응용'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조언함. 그는 미국 AI 생태계의 성공 요인으로 개방적인 오픈소스 환경, 풍부한 자금 조달, 그리고 명확한 시장 수요를 꼽으며, 한국도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루버는 AI 스타트업 창업의 핵심 과제로 '최고의 인재 확보'와 '제대로 된 시장 탐색'을 제시함. 기술 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를 모으고,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적응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또한, CE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속적인 자금 확보이며, 이사회 및 투자자 관리와 윤리적 리더십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임 - 그는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오픈소스 기술을 적극 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용하고, 정부의 'AI 유니콘 펀드'와 같은 자금 지원을 통해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함. 또한, 삼성,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마케팅, 영업, 서비스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함
	□ 롯데마트, AI 당도 선별 시스템 도입 후 과일 매출 7배 성장 (2025.09.18) - 롯데마트가 인공지능(AI) 기반 과일 선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패 없는 과일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 롯데마트는 9종의 과일에 대해 AI 선별 시스템을 적용하여 당도 검증을 고도화했으며, 그 결과 시스템 도입 첫해인 2022년 대비 과일 매출이 7배 이상 급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함. 동시에 불량률은 도입 이전보다 30%가량 개선되어 품질 신뢰도를 높임 - AI 선별 시스템은 매우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적용함. 외관 선별 단계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흠집까지 걸러내며, 수박이나 멜론처럼 내부 상태가 중요한 품목은 과육의 결함을 정밀 분석하여 미숙과나 내부 갈라짐이 있는 상품을 자동으로 제외함. 복숭아의 경우, 성숙 전에 핵이 갈라지는 '핵할' 현상까지 선별하여 최상의 품질을 보장함 - 롯데마트는 일반 상품보다 당도가 높은 원물을 '고당도' 상품으로, 20% 이상 월등히 높은 당도를 지닌 상품은 자체 프리미엄 브랜드 '황금당도'로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함. 이러한 전략에 힘입어 올해 고당도 상품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 향후 과일 전 품목으로 고당도 라인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NC AI, 한국섬유신문과 협력으로 패션 산업 AI 혁신 추진 (2025.09.18) - NC AI가 섬유·패션 전문지인 한국섬유신문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섬유·패션 산업의 AI 융합(AX) 혁신을 본격화함. 이번 협약은 NC AI가 개발한 AI 이미지 생성 도구 '바르코 아트패션'의 국내 확산을 주도하고,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AI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패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바르코 아트패션'은 패션 디자이너와 마케터를 위한 SaaS 기반 구독형 서비스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제품 디자인, 착장 이미지, 마케팅 비주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음. 이는 기존 디자인 프로세스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 자료 제작을 가능하게 하여 많은 패션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공동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패션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NC AI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특정 산업에 특화된 '버티컬 AI' 전략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며, 한국섬유신문은 축적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AI 솔루션이 산업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 SK네트웍스, 'AI WAVE 2025' 개최로 AI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2025.09.18) - SK네트웍스가 유망 AI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SK네트웍스 AI WAVE 2025'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SK네트웍스의 주요 글로벌 AI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AI 산업의 미래와 소버린 AI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됨.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AI 스타트업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HF0가 후원사로 참여하여 행사의 위상을 높임 -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기술 중심의 급변하는 사회에서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그는 이번 행사가 SK네트웍스가 구축해온 AI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기술, 자본, 비전이 연결되는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행사에서는 LLM 기술 기업 '업스테이지', 제약 특화 생성형 AI 솔루션 기업 '피닉스랩' 등 SK네트웍스가 투자한 대표적인 스타트업들의 기술 발표가 진행됨. 또한, 최성환 사장과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소버린 AI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하며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민관 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역설함
	□ 중소기업, AI 시대 숙련 기술 인력 양성에 어려움 호소 (2025.09.18) - 국내 중소기업들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숙련 기술 인력 양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짧은 법정 체류 기간과 잦은 이직, 단순 노동 중심의 업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특성상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을 다루는 숙련 인력으로 성장시키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팩토리화 같은 AI 전환은 설비, 공정, 물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동으로 공정을 제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어 내부 인력 양성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함. 이는 중소기업이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 에쓰오일, 업계 최초 AI 기반 주유소 판매 분석 시스템 도입 (2025.09.18) - 에쓰오일이 국내 주유소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판매 분석 시스템인 '마스(MAAS)'를 도입하여 주유소 운영의 스마트화를 선도함. 이 시스템은 주유소 운영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가격 전략과 맞춤형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는 솔루션으로, 유가 변동성과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인 주유소 업계에 새로운 해법을 제공할 것으로 주목받음 - 마스 시스템은 인근 주유소 가격, 고객 유입 및 유출 현황, 지역 경쟁 환경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적정 판매가를 도출함. 이를 통해 주유소 운영자는 기존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 이는 수익성 개선과 운영 효율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고객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방문 주기, 시간대, 주유량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에쓰오일은 마스를 단순한 운영 지원 도구를 넘어 '주유소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현장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삼성전자, AI 기능 강화한 '갤럭시S25 FE' 등 신제품 3종 출시 (2025.09.18) - 삼성전자가 '갤럭시S25 FE', '갤럭시탭S11', '갤럭시버즈3 FE' 등 팬 에디션(FE) 신제품 3종을 19일 국내에 공식 출시하며, AI 경험의 대중화를 선도함. 이번 신제품들은 향상된 성능과 함께 다양한 AI 기반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자들의 일상 속 창의성과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둠 - '갤럭시S25 FE'는 최신 '원UI 8'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 브리프', AI 기반 보이스피싱 감지 알림 등 유용한 AI 기능을 제공함. 또한 6.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대용량 배터리, 개선된 발열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여 강력한 성능을 안정적으로 지원함 - '갤럭시탭S11' 시리즈는 대화면에 최적화된 멀티태스킹 환경과 '갤럭시 AI'를 접목해 학습 및 업무 효율을 극대화함. '갤럭시버즈3 FE'는 강화된 ANC 성능과 함께 AI 기반 '제미나이' 호출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조작 없이 음성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고 실시간 통역까지 지원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임
대학교	□ 영남이공대-쿠팡, AI 물류 전문 인재 양성 협약 (2025.09.18) - 영남이공대학교가 전국 대학 최초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협력하여 최대 규모의 AI 기술 기반 지역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함. 이번 협약의 핵심은 지역 정주형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양 기관은 물류현장관리자 및 설비보전엔지니어 학과 개설,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첨단 융합형 인재를 배출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임 - 이번 협약은 South Region(영남·호남)을 아우르는 대학-기업 공동 거점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최대 수준의 규모로 진행됨. 특히 일학습병행과정은 학생들이 학업과 실무를 병행하며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즉시 전력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 영남이공대학교는 교육 운영을, CFS는 현장 수요 반영 및 채용 연계를 담당하며 대학, 기업, 학생이 모두 상생하는 구조를 완성함 - 영남이공대는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과 대학 진학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을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해 옴. 2021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부터 30여 개 기업과 협력하여 지난 3년간 1200여 명의 청년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대학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재 유출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 전남대-한국인공지능협회, AI 최고위과정 출범 (2025.09.18) - 전남대학교와 한국인공지능협회가 공동으로 'AISP-CAIO 인공지능 최고위과정'을 출범시키며 광주를 국가적 AI 리더십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함.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조직 혁신, AI 윤리 및 보안 등 AI 활용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교육을 통해 기업과 공공 부문 리더들을 AI 시대의 전략가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개강식에는 학계, 산업계, 지자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음. 한종훈 전남대 공과대학장은 이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변화를 주도하는 전략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AI가 보편적 역량이 된 시대에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전략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주가 국가적 AI 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첫 강연자로 나선 김정백 전남대 교수는 'AI 일상화를 위한 대전환 전략'을 주제로, 사람 중심의 AI 사회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함. 이번 최고위과정은 10주간 국내외 석학들의 강연으로 진행되며, 수료생들에게는 자격증과 수료증이 주어지고 전국 단위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장 기회도 제공될 예정임
	□ KAIST-POSTECH, 정기 교류전 '포카전' 개최 (2025.09.18) - 대한민국 이공계 양대 산맥인 KAIST와 POSTECH의 정기 교류전 '포카전'이 19일부터 이틀간 대전 KAIST 캠퍼스에서 개최됨. 200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과학과 스포츠를 통해 양교 학생들의 교류를 증진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유서 깊은 축제의 장임. 올해는 원정팀인 POSTECH의 명칭을 앞에 표기하는 원칙에 따라 '포카전'으로 불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사이언스 워(Science War)'라는 별칭에 걸맞게 해킹, 인공지능(AI) 경연대회, 과학 퀴즈 등 3개의 과학경기와 야구, 축구, 농구, e-스포츠 등 4개의 운동경기가 진행됨. 특히 과학경기는 양교 학생들의 뛰어난 지적 역량을 겨루는 자리로, 생성형 AI 도구 사용이 허용된 12시간의 해킹대회와 직접 개발한 AI로 경쟁하는 AI 경연대회가 큰 관심을 모음 - 총 7개 종목 중 4개 이상을 이기는 대학이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현재까지의 통산 전적은 KAIST가 12승 8패로 앞서고 있음. 이광형 KAIST 총장은 “포카전은 두 대학 학생들이 과학기술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동력을 찾는 소중한 기회”라며, 대한민국 이공계를 대표하는 주역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교류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해외	□ 중국, 자국 IT 기업에 엔비디아 AI 칩 구매 금지 (2025.09.18) -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자국의 주요 IT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구매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신형 제품인 'RTX 프로 6000D'의 시험과 주문을 중단하라고 지시함. 이는 미국과의 기술 경쟁 속에서 반도체 자립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됨 - 이번 조치는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산 AI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용 제품과 동등하거나 이를 능가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최첨단 칩 도입이 어려워지자 화웨이 등 자국 업체를 중심으로 AI 칩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내년 생산량을 3배로 늘릴 계획임. 이는 엔비디아 의존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립 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임 -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 소식에 대해 “중국 시장에 큰 기여를 해왔기에 실망스럽지만, 미·중 간의 더 큰 의제가 있음을 이해한다”고 밝힘. 그는 최근 중국 사업 상황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며, 향후 재무 전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라고 애널리스트들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함.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오픈AI 등 거대 유니콘, IPO 대신 '영구 사기업' 모델 선호 (2025.09.18) -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스페이스X 등 혁신적인 거대 유니콘 기업들이 기업공개 (IPO) 대신 의도적으로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는 '영구 사기업(Forever Private)' 모델을 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 이들은 사모 시장에서 막대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자금을 조달하며, 이는 글로벌 자본 시장의 자금 조달 방식이 공모와 사모의 '이중 궤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들이 비상장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의 유연성과 통제권 유지 때문임. 공모 시장의 분기별 실적 압박과 단기 주가 변동성에서 벗어나, AI나 우주항공처럼 막대한 초기 투자와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략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음. 이들은 주기적인 구주 매각(세컨더리 거래)과 텐더 오퍼를 통해 IPO의 핵심 기능이었던 인재 확보 및 투자자 유동성 공급을 효과적으로 대체함 - 이러한 현상은 사모 자본 시장의 성장과 제도화에 힘입은 것임. 과거 불투명했던 비상장 주식 거래가 전문 플랫폼의 등장으로 효율성과 신뢰성이 높아짐. 그러나 혁신 기업 성장의 과실이 소수의 창업자와 투자자에게 집중되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일반 대중이 고성장 단계의 투자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됨 □ 아마존, 수요예측·재고관리 기능 갖춘 판매자용 AI 에이전트 공개 (2025.09.18)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제3자 판매자(셀러)들의 비즈니스 운영을 돕는 새로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공개함. 아마존은 연례 판매자 콘퍼런스 '엑셀러레이트'에서 기존 AI 도구인 '셀러 어시스턴트'에 에이전트 기능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였음. 이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판매 전략을 직접 제안하는 능동적인 AI 비서의 역할을 하게 됨 -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셀러 어시스턴트'는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기능을 핵심으로 제공함. 판매자에게 적정 주문 수량, 최적의 할인 시점, 창고 보관료 절감을 위한 재고 반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이는 판매자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아마존에 따르면, 이 AI 모델은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혼란, 고금리 등 다양한 변수가 포함된 지난 25년간의 방대한 쇼핑 데이터를 학습함. 아마존은 미국 내 판매자들에게 이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개월 내에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제3자 판매자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학술지 '네이처', AI 생성 가짜 논문 잡는 탐지 AI 자체 개발 (2025.09.18) - 세계적인 학술지 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짜 논문, 이른바 '논문 공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 AI를 자체적으로 개발함. 마르크 슈펜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AI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네이처는 여전히 AI가 연구의 창의성, 효율성,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힘 - AI의 등장 이후 논문 수로 연구 실적을 평가하는 경향 때문에 가짜 논문을 대량 생산하는 '논문 공장'이 학계의 큰 골칫거리로 떠오름. 이에 네이처는 연구 진실성 팀을 운영하며 탐지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자체 개발한 탐지 AI '제페토'와 '스냅샷'을 공개함. 제페토는 AI가 생성한 무의미한 텍스트를, 스냅샷은 조작된 이미지를 탐지하는 역할을 함 - 네이처는 가짜 논문 탐지뿐만 아니라,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 AI 도구 개발에도 힘쓰고 있음. 150여 년간 축적된 방대한 양질의 논문 데이터를 학습시킨 '네이처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개발하여 연구자들의 새로운 발견을 돕고 있음. 이는 검증된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챗GPT와 차별화되며, 과학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